

제 4 장 사도행전 Tape #8093

성경에서 문제가 커가고 있는 교회의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가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사도행전 4 장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부분은 단지 계속되는 이야기이며, 한 장에서 사실 다른 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 장은 이 말로 시작합니다. 1 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말하고 있던 사람의 배경을 알아야만 하고, 누가 말하고 있었는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당신이 보는 대로, 4 장이 막 시작하는데, 그들이 백성에게 말했을 때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3 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 시의 기도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성전의 미문을 통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정규적으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걸인이었고, 앓은뱅이였으며, 베드로와 요한의 구제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하고 돌아서서, 한 세겔의 돈을 기대하고 있던 그의 손을 붙잡았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금과 은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고 하며, 그가 오른 손으로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로 일어났고, 그는 즉시로 치료되었습니다. 그는 힘을 얻었으며, 걷기 시작했고, 위 아래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고,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위 아래로 뛰는 것까지도 보았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아마도 흥분하여 시선을 끌려고 소리를 지르자, 그들은 그를 보고, 올해 동안 내내 저기 문에 앉아 있던 앓은뱅이가 아닌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틀림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가 걸을 수 있단 말입니까? 찾아봅시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솔로몬 주랑이라 불리는 아주 큰 면적으로 된 성전의 한 쪽에 모여 들었습니다. 그들은 경이로움과 경배함과 존경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관찰하고서, 말하기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것을 놀랍게 여기느냐?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과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바라보고 있느냐?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그를 이같이 온전히 낫게 했다는 것과, 그는 다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분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야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에게 전에 보여주셨던 일들을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대언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눈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다 말소될 것이니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도록,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대언에 따라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러,”**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가족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유대인의 한 종교적인 분파로서 영도, 천사도 믿지 않았고, 그들은 그 당시 물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는 끊임없는 종교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주의자들인 사두개인들은 사후 세계를 믿지 않았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삶이 내가 가진 전부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 앞으로 나갔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은 ‘인증된 희생물’, ‘희생물의 증서’를 팔았던 성전 밖에 재판정과 같은 작은 막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해 사람들이 가져온 로마 화폐를 성전 화폐로

교환해 주는 탁자를 설치해 놓고, 행한 그들의 그 작은 사업은 째짤해서, 큰 이익을 긁어모았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주요 문제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영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천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을 설교하려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누기 위해 그 디딤돌로, 앓은뱅이로 태어난 이 사람이 걸었다는 기적을 다소 사용하여 증명해 보이려고 했습니다. 2 절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며 또 예수를 통하여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하므로 근심하고,**” 그들이 무리를 우연히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예수를 통하여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설교하니, 그들은 근심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이것으로 정말 화가 났던 것입니다.

3 절 “**그들에게 손을 대어 붙잡았으나 이제 날이 저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었더라.**” 그들을 체포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 기적, 베드로의 가르침,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앓은뱅이의 구급-은 오후와 저녁 사이인 3 시간 정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4 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 가운데 믿는 이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쯤 되더라.**” 당시에 흥미로운 것은 인구조사를 할 땐 남자만 세었다는 것이죠. 여자는 포함하지 않았는데, 여자를 결코 셈에 넣지 않았습니다. 약 5 천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셨을 때, 이 숫자가 언급되었다는 것을 아시죠? 여자는 그때도 세지 않았습니다.

5 절 “**이튿 날,**” (혹은 아침에) “**그들의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이제 모든 부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바리새인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산헤드린이라는 전[whole] 종교회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원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6 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요한과 알렉산더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대제사장의 권속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7 절 “**사도들을 한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능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신명기 13 장(신 13:1-5)은 만약 대언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장래의 일을 말할 때, 혹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상한 일을 할 때, 대언자나 꿈꾸는 자가 어떤 다른 신을 경배하도록 인도한다면 그는 죽음에 놓일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논점은, 죽음의 판결로 그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기 부죄[self incrimination, 역자주; 자기의 진술 또는 답변이 자기를 유죄로 만드는 것]를 위해 도안되었습니다. 무슨 이름으로, 무슨 능력으로 당신이 이 일을 행했느냐?

8 절 “**그 때에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자, 사도행전 3 장인 지난 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자들의 특색과 특징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공히 하나님께 사용되도록 목적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숨은 하나뿐인 것을 잘 알죠, 이것은 곧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것만은 오래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오래가고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다른 특징을 보는데,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할 것이라 하셨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의 권능이 그들 위에 임하시니,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열매 맺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베드로에게 본능적이지는 못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 종교적인 세상의

거물들이 모인 총회가 베드로를 헐박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당하셨을 때,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며, 그 사람들의 공회의 밖에 있으면서, 그는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헐박을 당했으나, 지금은 그가 밖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운데 서서,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지만, 그들이 무슨 능력으로, 무슨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게 했느냐? 고 묻지만, 베드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이 그의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었는지요! 우리를 변화 시키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소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9 절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느냐 하는 일로 우리가 오늘 심문을 받는다면,” 여기서 베드로는, 오직 그 앓은뱅이를 걸을 수 있도록 한 것 때문에 우리를 체포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를 분명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내가 의미하는 것은 앓은뱅이가 기분이 좋다는 것인데, 그것은 선한 행위가 그 앓은뱅이에게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는 심문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체포되어, 이것 때문에 한 밤중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whole] 상황이 진짜 얼마나 불합리하게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하여, **10 절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 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무슨 이름으로,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고 싶나요? 그것은 당신들이 못 박았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을 보면, 앞서 지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대교회의 중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설교할 때마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목걸이로 사용했어야 했던 것은 십자가보다 작은 열린 무덤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 그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주님의 메시지! 그 분에 의해 이 사람이 너희들 앞에 서 있도다!

예수님에 대해 말하면서, 그는 시편으로 돌아갑니다(시 118:22). **11 절 “이 분이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그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으며, 종교적 사회의 건축가들이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12 절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니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독점적인 선언!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나는 양의 문이고 다른 어떤 길로 들어오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편 118 편의 인용에서,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참고였다는 것을 인식하려면, 시편 118 편의 메시야에 관한 대언의 문맥으로 돌아가 읽어보는 것이 흥미로운 것입니다. 이 독특한 대언에서 배경만을 생각해 보도록 권하는데,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의 내용을 기억해 보면, 돌들은 모두 장소 밖에서 잘라가지고 성전 지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돌들이 맞물려 놓일 그런 방법으로 새겨졌기에 어떤 모르타르도

사용하지 않았고, 성전을 짓는데 망치질과 삽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돌들은 들어갈 곳에 맞게 잘라 가져왔고, 그 장소에 내려놓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청소년 캠프장을 지을 때, 통나무로 지었습니다. 통나무를 미조리에 주문했기 때문에, 그곳의 공장에서 일하는 그들이 우리 건물을 지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통나무를 자르고, 새김 눈을 내고,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 그들은 거기에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낼 때 무더기로 보냈으나, 그것들의 끝에 번호가 있어 번호에 따라 그것이 건물의 어느 부분에 정확히 들어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흥미로웠는데, 당신의 설계도를 거처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당신이 번호 12N2 라는 통나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빌딩의 어디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벌목되어 자른 통나무를 우리가 모아서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란 단지 통나무 더미를 받고, 빗장 따위를 준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참 흥미롭죠!

솔로몬의 성전은 더 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통나무가 아니라, 돌이었으니까요. 돌을 자르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가져와, 그들이 알맞은 곳에 맞추는 일들 했습니다. 이는 건축자가 돌에 번호를 매기는 설계의 계획을 가졌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벽에 들어갈 줄로 알았는데, 그 돌에 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것이 왔다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야 할 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생각다 못해, 음, 그들이 돌을 자를 때 실수를 했군! 어디에도 맞출 수 없는 돌을 보내다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돌을 옆으로 던져두고, 성전 건축의 전 기간을 마쳐버리고 맙니다. 그 뒤 잡초가 자라서 그 돌 위를 완전히 덮어 버립니다. 그러나 성전이 완성될 즈음에, 그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모퉁이의 머릿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들은 돌을 잘랐던 곳에 편지를 보내, 모퉁이의 머릿돌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돌을 자른 곳에서는, 예? 우리는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라고 회신합니다. 수풀 속에서 이 돌을 우연히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것에 대해 크게 논쟁하게 될 것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것이 실제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이 대언은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것은 시편기자의 말대로 우리 눈에 기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께 관련된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리석은 건축자들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을 옆에 버렸느니라. 그러나 그 분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기 때문에, 구원이란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3 절 “이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고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베드로와 요한에 대하여, 그들은 세 가지의 잘못된 인식을 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것을 말해도 좋은가요? 첫째는, 그들이 못 배우고 무식하다는 인지입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이상히 여겼으나,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도자들이 사용했던 것보다 성경구절에 대한 지식을 더 잘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3년, 혹은 그 이상 지도를 받고 난 후였으니, 적어도 그들은 중단하지 않고 신학대학원을 다닌 정도가 됩니다. 하루 종일 그 분과 함께 있었고, 저녁까지, 그분이 가르치는 것과 성경구절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을 들었으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함께 성경구절을 퍼서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책을 저술하기도 했고, 가르치기도 했으며,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면, 여기서는 물론 베드로가 시편 118 편을 인용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가 말할 때마다 성경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7장에 가서 보면, 스테반이 얼마나 성경구절을 아주 친숙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가 예루살렘 대학교에 가기 위해 예비 연습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이 교육 정도가 없다면, 당신의 머리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식하고는 거리가 멍니다.

둘째는,) **“또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줄도 알게 되고,”** 그리스도와 의 관계를 과거형으로 쓰는 사고는 무식의 소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분은 말씀하시기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분은 그들과 함께 바로 거기에 서 계셨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의 인식을 없애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적 경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14절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므로 이 일을 반박할 말을 전혀 할 수 없었으나,” 그들은 딜레마에 빠졌는데, 왜냐하면 치료되어 그들과 서 있는 사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할 어떤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거기에 서 있는데 말입니다. 그가 거기에 서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가 여전히 앓은뱅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

에 대적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온전히 서 있는 앓은뱅이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영적인 감각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보리 채플에 끌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많은 앓은뱅이들을 온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삶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죠. 세상은 그들을 아무렇게나 써버렸죠. 그러나 지금은 완전한 그들을 보게 되고, 섬기는 것을 보게 되며, 미국에서도 가장 큰 교회 중에 몇 개에서 목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부인한다고 말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마약으로 삶이 파괴된 당신의 아이가 있었다면, 정말 명해졌을 것입니다. 정신의학자들이, 그들은 정말 온전하게 될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면, 차라리 그 아이가 내 자식이라는 것을 잊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회중 가운데 앉아서 수천 명을 섬기고 있는 것을 당신이 보면, 그것을 대적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아무 것도 말할 수 없을 것이며, 단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즐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마이크 메칸토시의 어머니로부터 가장 귀한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기 갈보리 채플에서 마이크의 삶을 통해 행하셨던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은 마이크가 치료되고 변화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당신이 그것에 대적하여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15절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 명령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16절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는 그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으므로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로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다 알고 있습니다. **17절 “다만 이것이 백성 가운데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것이 그들이 만든 세 번째 실수입니다! 강력한 경고와 비난으로 그들을 조용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영으로 충만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을 그렇게 해 조용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조용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으름장으로 그들을 조용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자체가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대한 진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18 절 “그들을 불러 명령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라.” **19 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20 절** “이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하매,” 다른 말로 하면, 당신들의 명령을 따를 의향이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당신들의 으름장으로 우리를 조용히 시킬 수는 없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만 하기 때문이요. 감각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군중에게 불복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자, 당신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듣는 것이 있어 옳은 것을 찾는다면, 당신이 자신의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듣는 것은 흥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결코 조용히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당신은 대언자 예레미야를 기억할 것인데(렘 20:9),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서 향을 피웠고, 그는 체포되어 토굴에 던져졌으며, 그는 낙심되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데 말이야, 이것 참! 나에게 일어난 일 좀 보아, 지금! 토굴에 갇힌 이 가련한 신세, 춥고 축축하고 캄캄한 곳에 있다니! 나는 이런 곳을 싫어해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당신을 향해 이야기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만약 그 분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종을 다루는 방법이 그것이라면, 그만 두세요. 나는 더 이상 그 분의 이름을 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마치 타는 불이 자기 뼈에 사무치는 것처럼, 그 분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참음에 지쳐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체자들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뼈에 있기에, 우리는 말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보고 들었던 것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21 절 “이에 그들이 백성으로 인하여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더 위협을 하고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며,” 그것을 더 가까이 가서 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되어진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시도했습니다. 기적이 처음 일어났을 때, 그들은 베드로를 바라보았지만, 베드로는 그들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하여 나타난 틀림없는 결과는 사람들이 지금은 그 되어진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한다면, 바른 길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와서 당신의 어깨를 툭툭 치며, 당신이 행한 일은 놀라워!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 자신을 보기 바랍니다. 당신은 잘못된 곳에서 있던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22 절 “또 이 병 고침의 기적이 나타난 사람이 마흔 살이 넘었기 때문이더라.” **23 절** “사도들이 풀려나매 자기 동료들에게로 가서,” (적대 분위기에서 친근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한 것을 다 전하니,” 그들은 모든 위협을 보고했고, 우리가 감옥에 던져졌었다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더 이상 감히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들은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24 절 “그들이 들고,” (만들어진 모든 위협에 대한 보고서며, 주어진 행정들과 명령들을 말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기에 다시 가끔 의로운 원인을 향하여 반대하는 세상적인 힘과 갈등하는 중요한 열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모두 함께 하여 표지판을 만들어 가지고 성전 앞에서 시위를 했다는 말은 없으나, 그들은 하나님께 나갔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불의한 것을 볼 때, 시위와 같은 공개적 행위를 하기보다는 기도를 통하여 실제로 더 많은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피켓[picket, 역자주; 끝이 뾰족한 말뚝]을 들거나, 표지판을 들고 있는 사람은 못합니다. 당신이 만약 함께 하고 싶거든, 그것에 대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봐요,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호전적인 형태의 운동은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으뜸장은 분명히 틀린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틀렸음으로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기도의 위대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인사말인데, 그들이 기도로 말을 붙인 분에 대해 노트하기 바랍니다.)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오.”** 주님, 당신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사말입니까! 당신이 기도에 저런 연설만을 한다면, 전쟁은 이미 끝이 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도움을 누구에게서 구합니까?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원근법에 맞게 일들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 옆에서 볼 수 없을 만큼 너무 크시기에 내게 희미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그것들에 의해 묻혀 있었고, 그것들이 나를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내게는 너무 많지만, 이봐요, 그 분을 위해 작은 이 손가락 하나조차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위해 부탁하고 있는 분을 인식할 때 당신은 원근법에 맞게 그 일들을 얻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압도되어 실망하고 있었을 때(렘 32:27), 그 분은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나는 하나님이라. 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그것을 원근법에 맞게 관찰해 보라. 기도에 옳은 인사말을 놓을 때 일어납니다. 갑자기 일들이 원근법에 맞게 놓입니다.

25 절 “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격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들을 피하는가?” **26 절 “땅의 왕들이 일어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분이로소로다.”** **27 절 “이는 진실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모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였음이오니,”** 주님, 당신은 천년 훨씬 이전에 이것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는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방심한 틈을 타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또한 상황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천년 전에 그것들에 대해 기록하셨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내가 통과하고 있는 환경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것들에 대해 아셨습니다. 그 분은 갑작스럽게 잡히시지 않고, 방심하시다가 잡히신 것도 아닙니다. 다윗을 통하여 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평안하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28 절 **“이것이 무엇이든지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미리 작정하사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고자 함이니이다.”** 주님, 당신의 계획에 따라 바로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적이 정해진 것을 그들은 행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메시아를 대항하려고 다 함께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경각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험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들처럼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결정하셨으며, 계획하셨던 사람들입니다. 29 절 **“주여,”** (흥미로운 것은, 당신이 보지만, 그들은 그들의 탄원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막서두르지 않았고, 가장 먼저 경배하는데 시간이 보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로, 기도는 항상 경배로 시작해야만 합니다. 단지 주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식하는 것,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대상과 도움과 원조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대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셨다는 인식 등을 말합니다. 나에게 힘을 꼭 주신다는 것과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 뒤, 하나님께 탄원을 가져갑니다.)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옵고 또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해 주시옵며,”** 주님, 그들이 우리에게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당신의 말씀을 말해야 하는 위협에 직면할 때 담대함을 주소서, 주님!

30 절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계속해서, 주님, 말씀의 증거를 주소서. 당신의 손을 펴서 고치소서. 주님, 그들 앞에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을 보이소서.) **“또 표적과 이적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하더라.”**

31 절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치매 함께 모인 무리가 흔들리더니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이것은 참 능력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모인 곳이 흔들렸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에 대한 약간의 통찰력을 얻습니다. 32 절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그들은 함께 묶였습니다. 아름다운 교제, 코이노니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함께 묶였습니다.) **“모든 물건을 공용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자기 소유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들은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부에 대한 공동의 나눔이 있었던 것이죠.

33 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매,”** (다시 부활을 말하는데,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메시지의 심장입니다.)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얼마나 위대한 조화로움인가! 큰 능력, 큰 은혜의 조화를 말합니다!

34 절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다 그것을 팔아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 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대로 나누어 주었음이더라.”** 그래서, 부의 분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36 절 **“키프러스 지방 출신 요세라 하는 레위 사람이 있어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 하더니 (이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 37 절 **“그가 땅이 있을 때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바나바를 소개하는 듯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만날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회심되고, 그가 예루살렘이 돌아오니, 교회의 교부들은 그의 회심에 대해 많은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무슨 분파에 속한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의심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사실 그를 성심성의로 대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는 떠나서, 지금의 터키인, 다소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텐트를 만들면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에 발전되기 시작하자, 바나바는 다소에서 자란 사울이 이방인의 문화에 능통하기 때문에, 이 이방인 사역에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찾아,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돕도록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령님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 이들에게 말씀하실 때, 사역을 위하여 내가 부른 곳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손을 얹어 안수했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1차 여행 기간동안 맨 먼저 키프러스로 갔는데, 이것이 키프러스에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바나바에게 이곳은 전혀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교여행의 첫 기착지로 삼았고, 이어, 지금은 터키 지역인 바울이 친숙한 곳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제자들에 의해 명명된 바나바를 우리에게 간략하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위로 또는 격려의 아들, 왜냐하면 그가 일행들을 소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데려가는 데 사용되었고, 그들 자신들을 바울로부터 분리하도록 야기한 그 두려움을 물리치는 일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을 달리 하는 것을 볼 때, 이 또한 흥미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더 멀리 가보면, 위로의 아들과 바울 사이에 일어났던 불화로 그들이 나뉘게 된 내용에서 어떤 간격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물건을 팔아 모든 기금을 분배하기 위한 공동의 기금에 대한 언급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을 명령한 것이라고 볼 근거를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자발적인 행위였을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함으로써 인기를 얻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거나 권장한 곳은 그 어디에서도 없습니다. 그러나 리더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는 경우는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에 매여, 그렇게 한다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데 성령님의 지시라기보다는 감정에 의해 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내가 말한 것처럼, 이 장들이 실제로는 연결되어 있는데, 다음 장으로 가보면, 이 실행의 결과에서 발전된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더 크게 발전될 것입니다. 초기 공의회들 중에 하나는 교회의 구제 프로그램의 분배의 문제를 다루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참혹한 재정 곤경으로 깨어지고 맙니다. 공산주의는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옳은 동기를 가진 하나의 실험이었지만, 결국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의 공산주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실험을 위한 노력이 재정적인 고통에 빠지게 했습니다. 보세요, 당신은 새로운 것들에 대해 참견해야만 합니다. 폰지[Ponzi]나 피라미드[Pyramid] 계획[역자주, 사기 방식의 형태들]과 같은 것입니다. 당신이 그 바닥에서 새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형

제들을 위한 헌금을 모으는 일을 위해 마침내 이방인 교회로 가기에 이르렀습니다. 연합의 삶을 성급히 시도하다가 교회에서 퍼져가기 시작한 문제들을 보는데, 다음 주 이 시간을 다 사용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더 완전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낳는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에 감사합니다. 회의론자 앞

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날에도 당신의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당신의 마음과 전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지자는 아사 왕에게, 이는 주의 눈이 이리저리 온 땅을 두루 다니사 완전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강하심을 보이시기 때문이니 이 일로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은즉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대하 16:9)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주간 당신들의 마음이 그분의 것과 일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당신의 행위에 강하게 보여주실 수 있고, 그분의 목적이 당신의 삶에서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악 된 세상에 그분의 사랑의 증거와 그분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의 구원을 만드신 섭리가 있기를 바라며, 복된 한 주일이 되시고, 우리가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세상에 주님께서 당신의 믿음과 사랑을 나눌 많은 기회를 주시기 기도드립니다.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